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5



▶ 46회 예고
데비는 아들 마힌다를 위해 산치 절에 있는 사문이 축원해 주기를 원한다. 마침 산치에 있는 데바 가족의 절에는 앙가국 짬빠에서 온 비베깐난다 사문이 와 있었다. 데바 부인은 즉시 하인을 보내 비베깐난다 사문을 데리고 온다.

데비, 마핸드라를 출산하다

베디샤데비가 시프라강 언덕에 있는 별궁에서 사내아이를 출산했다. 별궁 궁녀 우두머리가 경비대장에게 데비의 출산 소식을 알려왔고, 경비대장은 즉시 아쇼까에게 보고했다. 아쇼까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말을 타고 별궁으로 달려갔다. 보름달이 시프라강 너머 검푸른 서쪽 하늘에 떠 있는 꼭두새벽이었다. 밤안개가 옅게 드리워져 보름달 주위에는 둥그런 달무리가 져 있었다. 달무리 밖에서는 몇 개의 새벽별이 적막하게 빛났다.

기름불 불빛이 산실로 쓰인 방 안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다행이 데비와 갓난아기 모두 아무 탈 없이 건강했다. 아쇼까를 본 데비가 침대에 누운 채 희미하게 웃었다. 아쇼까가 데비를 위로했다.

"부인은 나에게 큰 행복을 주었소."

"아기가 당신을 닮은 것 같아 더 기뻐요."

데비의 뺨에는 땀방울이 송알송알 맺혀 있었다. 아쇼까는 땀에 젖은 데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이마를 반쯤 덮고 있던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은 밤새 산고에 시달렸던 흔적이었다. 데비가 말했다.

"아기 이름을 지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만 하고 있소."

"아직 짓지 못했다는 말씀이군요."

"며칠 전에 지은 이름이 있기는 한데 더 좋은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소."

아쇼까가 남아와 여아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놓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더 마음에 드는 이름을 짓고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었다. 궁중 제관들에게 이름을 부탁했지만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를테면 궁중제관들이 내놓은 아들 이름으로 마하윗자(큰 지혜)라거나 딸이름으로 웃제니수카(웃제니의 행복) 등이었던 것이다. 결국 아쇼까 자신이 짓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쇼까가 아기 이름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산치 동산 절에서 담마팔 사문에게 들었던 이야기 때문이었다. 담마팔 사문은 데비의 전생과 금생, 데비가 낳을 자식들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다. 데비는 전생에 사람들에게 보시를 많이 하여 금생에 부잣집 딸로 태어났으며, 자식을 낳으면 그 공덕으로 아들이든 딸이든 '존귀한 귀인' 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쇼까가 담마팔 사문에게 '존귀한 귀인' 이란 어떤 사람이냐고 재차 묻자 세상에 나오면 수승한 왕이 되고, 세속을 벗어나 출가하면 사문이 될 운명이라고 예언해주었던 것이다. 때문에 아쇼까는 담마팔 사문의 예언과 걸맞게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데비가 말했다.

"처음에 지은 이름이 무엇이었지요? 아버지께서 길을 잃었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마핸드라, 마하와 인드라가 합쳐진 이름이오."

마하는 '크다' 라는 의미였고 인드라는 번개의 신 혹은 군신, 영웅신, 하늘의 주인을 뜻했다.

"당신답군요."

"어째서 그렇소?"

"당신은 아반띠국의 군신이자 영웅이시니까요."

"마핸드라가 마음에 든다는 말이오?"

"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데비가 좋다고 하자 아쇼까는 즉석에서 우두머리 궁녀가 안고 있는 아기에게 다가가 이름을 불렀다.

"마핸드라. 인드라신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마핸드라야!"

강보에 쌓인 마핸드라를 건네받은 아쇼까는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흡족해 했다. 그러자 데비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딸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 말하면 안 될 것 같소."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더 낳고 싶어요. 저는 마핸드라 동생은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당신을 닮은 딸이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소. 마핸드라가 나를 닮았으니 딸은 당신을 닮아야 하지 않겠소?"

"그렇게 된다면 공평하겠네요."

"공평하다고 하니 말하지 않을 수 없소. 딸이름은 상가미트라라고 지었소."

상가는 승가, 미트라는 친구였다. 그러니 상가미트라는 '승가의 친구' 라는 뜻이었다.

"데비가 사문의 친구였듯 딸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상가미트라라고 지었소."

데비는 아주 만족했다.

"딸을 낳으면 반드시 상가미트라라고 하겠어요."

"데비가 좋다면 나야 반대할 이유가 없소. 내성 밖의 저잣거리 사람들은 상가밋따라고 부를 텐데 어감이 괜찮은 것 같소."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는 브라흐민 귀족들은 상가미트라, 외성이나 성 밖에 사는 평민들은 상가밋따로 부를 터였다. 마핸드라도 성 밖의 사람들은 마힌다로 부를 것이었다.

궁으로 돌아온 아쇼까는 경비대장에게 베디샤데바를 불러오게 했다. 마침 데바는 내성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 있었다. 데바는 데비의 출산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자축하고 있던 중이었다. 데바를 찾아온 경비대장이 말했다.

"데바 수장님, 부왕님께서 부르십니다."

"무슨 일인가요?"

"부왕님께서 데바 수장님과 함께 자축연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아, 고마운 일이지요."

데바는 당장 궁으로 갈 채비를 했다. 데비 별장으로 가려던 데바 부인이 하녀들에게 지시했다.

"부왕님께 보낼 술과 과일을 수장님 마차에 가득 싣거라."

"예."

"나는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볼 테다."

"예, 데비님 별장으로 갈 마차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데바는 아쇼까 궁으로 서둘러 떠났고, 데바 부인은 데비 별궁으로 가져갈 갓난아기 저고리와 기저귀 용도의 무명 등을 챙겼다. 데비에게는 새로 지어 입을 까시산 비단을 넉넉하게 꺼내 마차에 실었다.

베디샤데바가 궁중 접견실에 도착했을 때는 늙은 선봉대장과 호위대장도 와 있었다.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 맞이해 주었다.

"데바 수장님! 왕손 탄생을 축하합니다."

최측근 심복인 늙은 호위대장이 말했다.

"부왕님께서 왕손님이 탄생했으니 감옥에 죄인들을 풀어주고 성민들에게 술을 하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데바는 손자가 탄생한 것을 비로소 실감했다. 자신을 대하는 대장들의 태도는 한결 부드럽고 정중했다. 상인수장인 데바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끄샤뜨리야 무사계급이라는 것을 은근히 바이샤 상인계급인 데바에게 내비치곤 했던 것이다. 이제 데바는 신분을 떠나서 아쇼까 부왕의 확실한 장인이었다. 아쇼까가 접견실로 들어섰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축하했다.

"부왕님이시여, 축하드립니다!"

궁녀들이 술과 과일을 가지고 들어왔다.

"연회장은 지금 닫혀 있을 텐데 누가 가져온 것이오?"

데바가 말했다.

"저의 집에서 급히 가져와 변변치 않습니다."

"오, 데바 장인도 나 못지않게 기쁜 모양이오."

"왕손이 태어났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기 이름을 마핸드라라고 지었소."

선봉대장이 바로 이름의 뜻을 풀었다.

"마하에다 인드라를 합친 이름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경비대장도 한 마디 거들었다.

"웃제니 말로는 마힌다이니 웃제니 사람들은 마힌다라고 부를 것입니다."

"대장, 궁중제관들은 어디 갔소? 결국 내가 지은 이름으로 결정했지만 제관들도 고심했다오."

"출산 소식을 듣자마자 시프라강으로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되지 않았소?"

궁중제관의 기도는 아침해가 뜨기 전까지였던 것이다. 아쇼까는 제관들이 빨리 돌아와 합석해서 마핸드라를 축원해주기 바랐다.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나갔으니 이제 돌아올 시간인 것이었다. 그러나 궁중제관들은 시프라강 강변에서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 마핸드라의 탄생은 그만큼 경사 중에 경사였기 때문이었다.

궁녀들이 다가와 아쇼까의 금잔과 데바와 대장들의 은잔에 술을 따랐다. 아쇼까가 금잔을 들고 짧게 말했다.

"데비와 마핸드라 건강을 위하여!"

"부왕비와 왕손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술이 몇 잔 오간 뒤였다. 늙은 호위대장이 말했다.

"부왕님이시여, 성민들에게 술을 내리시는 지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감옥의 죄인들을 다 풀어주라는 말씀은 재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이오?"

"죄인 중에도 살인, 강간, 도둑 등 중죄인이 있고, 사소한 폭력이나 비방, 모욕 등 경죄인이 있습니다. 중죄인과 경죄인을 모두 풀어주었다가는 성민들이 불안해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대장들의 생각은 어떻소?"

"선봉대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데바가 다른 의견을 냈다. 아쇼까의 지시와 대장들의 충언을 절충한 셈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죄인은 가두어두고, 그 밖의 중죄인은 아반띠국 변방에서만 살게 하고 경죄인은 풀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쇼까가 웃으며 데바의 의견을 따르도록 지시했다.

"중죄인 얼굴에 낙인을 찍어서 변방으로 보내 살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일이오."

뒤늦게 궁중제관이 나타났다. 아쇼까는 궁중제관에게 직접 자신의 금잔에 술을 따라주며 치하했다.

"마핸드라 탄생을 위해 기도하고 온 그대에게 특별히 금잔에 술을 내리겠소."

"부왕이시여, 황송하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지만 아쇼까와 데바의 얼굴색은 그대로였다. 술이 약한 경비대장의 얼굴은 황토빛깔처럼 붉었다. 나머지 대장들도 취기가 올라 불콰했다. 아쇼까가 데바를 보면서 말했다.

"다음 순행지는 수나빠란따국이오. 데바 장인도 동행해 주시오."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반띠국에 복속된 수나빠란따국은 아반띠국 남서쪽 끝에 바다를 안고 있는 나라였다. 바다를 통한 해외무역이 일찍부터 성했던 나라로 진귀한 물건들이 많았으므로 내륙의 상인들이 늘 주목하고 있는 곳이었다. 데바는 자나 깨나 수나빠란따국의 상인수장과 친해지려고 노력해 왔는데 동행하게 된다면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자축연이 끝나자마자 데바는 바로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데바부인은 데비 별궁으로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저택에는 하인들만 있었다. 데바는 술기운을 빌어 호기 있게 혼자서 소리쳤다.

"부왕님을 따라서 수나빠란따국을 가다니! 데비가 아들을 낳으니 경사가 겹치는구나. 수나빠란따 상인수장을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가."

하인들이 놀라서 슬그머니 물러섰다. 그러나 데바는 곧 흥분을 가라앉혔다. 수나빠란따 상인수장을 아직 만나지 않았을 뿐더러 그를 설득해서 독점계약을 맺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었다. 〈계속〉



일일시호일

유방암이 앗아간 소박한 꿈…
치료만이 희망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우샤니씨 유방암으로 가슴 절제
전이 가능성 높아 항암치료 필수지만 매회 120만원은 부담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